

전남도, AI·우주산업 등 미래산업 이끈다

국가컴퓨팅센터 등 내년 국비 1614억 확보

분산형전력망·민간우주발사체 구축 본격

전남도가 미래 세계경제의 핵심 동력인 AI산업의 글로벌 전초기지 조성을 위해 내년 정부 예산에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국가 AI컴퓨팅센터 등 총 1614억 원의 AI·우주산업 관련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 수년간 추진한 'AI 중심지 전남 조성 전략'과 '민간 주도 육성, 국가 AI컴퓨팅센터 등 총 1614억 원(총사업비 2조5000억원), AI 분

가 예산이 반영된 의미 있는 결과다.

전남도는 국내외 데이터 기업과 AI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오픈AI-SK 데이터센터'와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에 성공하며 대형 프로젝트의 기반을 다졌다. 이 결과 2026년 국비에 다양한 AI 관련 핵심사업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118억원(총사업비 2조5000억원), AI 분

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1196억원(총사업비 1조200억원), 대불산단 AX 실증 협업 플랫폼 구축 20억원(총사업비 220억원), 철강·금속산업 인공지능 전략(AX) 지원센터 구축 28억원(총사업비 220억원), 여수국가산단 AX 실증단 구축 20억원(총사업비 205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또 우주산업 관련 예산도 대거 확보해 글로벌 우주 강국의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할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사업은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20억원(총사업비 485억원), 국방 발사지원시설 구축 6억 5000만원(총사업비 417억원), 민간 발사장 1·2단계 조성 112억원(총사업비 1705억원),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27억원(총사업비 274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전남 우주산업 인프라 확

장

민간기업 참여 촉진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교류보가 될 전망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국비 확보로 AI와 우주산업을 빠르게 추진할 든든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며 "전남이 대한민국 AI·에너지 수도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광주명장·기술장 등 인증서 및 상패 수여식에 참석해 인증서 및 상패를 수여한 후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경제 이끈 우수기업·기술인 '시선 집중'

광주형일자리 3곳·일자리우수 16곳·우수 중기인 5명 선정

광주명장 '미용' 이정례…'기술장' 김재호·정경복·장기홍씨

광주시가 올 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우수 기업과 기술인들을 선정해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1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형일자리기업 3개사, 일자리우수기업 16개사, 우수중소기업인 5명, 광주명장 1명, 기술장 3명에 대한 '인증서 및 상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광주형일자리기업으로는 사전 적격성 검토, 서류심사, 현장점검,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한국알프스㈜, ㈜나눔테크, ㈜신성테크 3개 기업이 선정됐다. 2022년 예비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던 한국알프스㈜는

의 행정·제정적 혜택을 제공한다.

일자리우수기업은 2년 이상 운영 중인 광주지역 기업 중 한해 동안 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 16개사가 선정됐다.

일자리우수기업은 ㈜부각미, 정평시 스텔㈜, ㈜아토모스, ㈜주지용금속, ㈜주지용, ㈜무진기연, ㈜정상애이치씨, 에스마 이스연구원㈜, ㈜유튜, 예술유통협동조합, 나코스(유), ㈜키라밸리, ㈜선우, 레 피스드㈜, ㈜195에프엔비, ㈜현대하이텍 등이다.

또 광주시는 기술력이 우수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 5명(강철원 ㈜유트 대표, 김준에 ㈜승강 대표, 마상동 ㈜다원물산 대표, 김순곤 ㈜전봉금형 대표, 김법안 ㈜195에프엔비 대표)을 우수중소기업인으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기업의 정규직 종사자 수 규모에 따라 2000만원~1억원의 인증 지원금을 제공하고, 2년간 13종

의 인증 지원금을 제공한다.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기업의 정규직 종사자 수 규모에 따라 2000만원~1억원의 인증 지원금을 제공하고, 2년간 13종

"여객기참사 '부모 사망' 유족에 상속세 공제를"

여야, 12·29여객기참사특위서 제기…30일 결과보고서 채택

여야는 16일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검토하고자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번 사고로 고아가 된 유가족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아버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니에게 먼저 상속되고 상속 세 공제 금액이 생긴다. 하지만 동시 사망인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녀가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참

사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차체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한 사고(225명 사망) 때도 과학·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아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일이 줄었다"며 "부모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동시에 사망해 고아가 되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해주는 특례도 있는데, 이 특례 적용에 대한 세제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참

사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차체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한 사고(225명 사망) 때도 과학·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아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일이 줄었다"며 "부모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동시에 사망해 고아가 되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해주는 특례도 있는데, 이 특례 적용에 대한 세제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참

사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차체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한 사고(225명 사망) 때도 과학·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아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일이 줄었다"며 "부모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동시에 사망해 고아가 되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해주는 특례도 있는데, 이 특례 적용에 대한 세제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참

사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차체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한 사고(225명 사망) 때도 과학·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아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일이 줄었다"며 "부모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동시에 사망해 고아가 되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해주는 특례도 있는데, 이 특례 적용에 대한 세제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참

사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차체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한 사고(225명 사망) 때도 과학·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아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일이 줄었다"며 "부모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동시에 사망해 고아가 되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해주는 특례도 있는데, 이 특례 적용에 대한 세제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참

사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차체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한 사고(225명 사망) 때도 과학·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아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일이 줄었다"며 "부모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동시에 사망해 고아가 되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해주는 특례도 있는데, 이 특례 적용에 대한 세제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참

사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차체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한 사고(225명 사망) 때도 과학·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아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일이 줄었다"며 "부모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동시에 사망해 고아가 되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해주는 특례도 있는데, 이 특례 적용에 대한 세제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참

사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차체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한 사고(225명 사망) 때도 과학·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아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일이 줄었다"며 "부모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동시에 사망해 고아가 되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해주는 특례도 있는데, 이 특례 적용에 대한 세제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참

사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차체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한 사고(225명 사망) 때도 과학·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아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일이 줄었다"며 "부모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동시에 사망해 고아가 되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해주는 특례도 있는데, 이 특례 적용에 대한 세제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참

사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차체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한 사고(225명 사망) 때도 과학·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아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일이 줄었다"며 "부모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동시에 사망해 고아가 되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해주는 특례도 있는데, 이 특례 적용에 대한 세제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참

사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차체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한 사고(225명 사망) 때도 과학·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아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일이 줄었다"며 "부모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동시에 사망해 고아가 되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해주는 특례도 있는데, 이 특례 적용에 대한 세제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참

사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차체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한 사고(225명 사망) 때도 과학·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아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일이 줄었다"며 "부모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동시에 사망해 고아가 되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해주는 특례도 있는데, 이 특례 적용에 대한 세제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참

사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차체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한 사고(225명 사망) 때도 과학·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아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일이 줄었다"며 "부모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동시에 사망해 고아가 되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해주는 특례도 있는데, 이 특례 적용에 대한 세제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참